한국학생들의 부정관사 습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quisition of Korean EFL College Students' Indefinite Article

김경훈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Kyung-Hoon Kim(core-777@hanmail.net)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학생들의 부정관사 습득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문제로 성별에 따라 부정관사 습득에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문제는 영어 능숙도에 따라 부정관사 습득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광주소재의 C 대학교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195명의 학생들이며 남학생들이 80명, 여학생들이 115명이었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부정관사에 관한 19문제를 제시하였고 설문지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방법을 실행하였다.

성별에 따른 부정관사 습득의 결과는 5개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영어 수준별 부정관사 습득의 결과는 14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중심어 : | 부정관사 | 성별 | 능숙도 | 습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rocess of Korean students' acquiring the indefinite article. To research this , we will propose two subjects of study as below. The first subject is that we will examine whether there will be any differences of the acquisition in the indefinite article between gender, male and female. The second subject is that we will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of the acquisition by the degree of proficiency at English.

The subject of a sample survey was 115 female and 80 male students, total 195 students, who take English courses as a required subject at 'C ' university in Gwangju. The necessary data for this study was obtained by the questionnaires with 19 questions about the indefinite article.

The data analyzing method was ANOVA(analysis of variance between groups) through the statistics program SPSS 12.0.

As a consequences of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side of the acquisition in the indefinite article between gender, male and female is closely related in the data result of 5 questions and the side of the acquisition by the level of proficiency at English has the meaningful data result of 14 questions at the questionaries.

■ keyword : | Indefinite Article | Gender | Proficiency | Acquisition |

접수번호 : #060126-002
접수일자 : 2006년 01월 26일
심사완료일 : 2006년 02월 17일
교신저자 : 김경훈, e-mail : core-777@hanmail.net

1. 서 론

영어를 외국어로써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영어 관사에 대해서 어렵지도 중요하지도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 박재곤(1993)[5]의 연구를 보면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에서 교사가 관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7%, 관사용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은 30%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관사학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한국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영어 관사를 학습함에 있어 관사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영어의 관사는 부정관사, 정관사, 무관사로 분류 된다. 관사는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 중의 하나이며 사용상 오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관사의 체계 중 부정관사의 체계에 관하여 살펴보고 한국학생들이 부정관사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부정관사를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 하였다.

연구문제 1 : 성별에 따라 부정관사 습득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영어 수준(상·중·하)에 따라 부정관사 습득의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Kosofsky(1984: 102-103)[11]은 부정관사는 수사인 one 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했다. 막연한 어떤 하나를 지칭하며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countable noun)와 함께 쓰인다. 부정관사의 발음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는 a를 사용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는 an을 사용한다. 그러나 항상 셀 수 있는 명사와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즉 셀 수 없는 명사(uncountable noun) 와도 함께 쓰일 수가 있다. 이에 대해 조용남(1995: 21)[7]은 추상 ·물질적의미를 가진 비단위(non-unit words) 명사라도 그것을 단위화할 수 있고 단위로서의 개념을 갖게 되면 가산명사가 되어 문법적으로 당연히 부정관사를 그 앞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한학성(1996: 53-59)[8]은 영어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어떤 특정한 의미 관계를 보이며 셀 수 있는 명사로 전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가산성의 전성'이라 표현하며 주로 a unit of, a type of, an instance of 등처럼 예측 가능한 의미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주장했다. 그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셀 수 없는 물질 명사가 일정한 단위량을 기준으로 하면 셀 수 있는 명사로 전성된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면

(1) a. *A coffee is not a good drink for children.
b. *Coffees are not good drinks for children.
c. Coffee is not a good drink for children.

(2) a. Would you like a coffee?
b. Two coffees, please.

(1c)의 경우는 물질명사로 coffee를 나타내므로 (1a)와 (1b)와 같이 부정관사나 복수형을 사용할 수 없다. (2a), (2b)는 찻집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상황으로 coffee가 한 잔 또는 여러 잔이라는 단위개념을 가진 가산성의 전성이 되어 (2a), (2b)처럼 단수와 복수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한학성(1996: 55)[8]은 이런 식의 용법은 다방이나 음식점 등에서 주문을 하는 경우에만 쓰이고 가정집에서는 쓰이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김세중(1993: 145)[2]은 찻집이나 음식점에서는 한 잔이 일정한 크기의 잔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단위화될 수 있지만 가정에서의 한 잔은 어떤 표준적인 용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셀 수 없는 물질명사가 종류의 의미를 나타내면 셀 수 있는 명사로 전성된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들을 보면

(3) a. They drank three or four different wines at every meal.
b. It's an article about French cheeses.

c. To make wine, grapes are fermented with water and sugar.

(3a)는 여러 종류의 wine을 의미하고 (3b)는 여러 종류의 cheese를 의미하는 것으로 셀 수 있는 명사로 전성되었다. 그러나 (3c)는 일반적인 wine을 의미하므로 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관사나 복수형을 사용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셀 수 없는 명사가 구체적인 예를 의미할 경우에 전성될 수 있다. 주로 추상명사에서 많이 쓰인다. 다음 예문을 보면

(4) a. Noise can make you ill.
b. We heard a sudden noise.

(4a)는 일반적인 의미의 소음을 나타내므로 전성이 일어나지 않아 부정관사나 복수형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4b)는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소음을 의미하므로 전성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부정관사나 복수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까지 '가산성의 전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추상명사를 셀 수 없는 명사로 생각하며 부정관사나 복수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추상명사이면서 부정관사와 복수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가산성의 전성' 의 문제가 아니라 추상명사이지만 셀 수 있는 명사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면

(5) a. The medicine had an effect.
b. I have a problem with money.
c. Can you give me an idea of how much it will cost?

예문 (5)의 a, b, c에서 보듯이 effect, problem, idea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이다. 그러나 이런 명사들은 가산 명사로 취급된다.

이 뿐만 아니라 시간, 거리, 무게를 나타내는 경우도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인다. 다음 예문을 보면

(6) a. He was driving at about 50 miles an hour.
b. We live only a few yards from the bus station.
c. An ounce of practice is worth a pound of theory.

위의 (5)-(6)의 예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로서 셀 수 없는 명사로 인식되지만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부정관사와 복수형을 사용할 수 있다.

Jespersen(1924: 198)[10]은 명사의 가산성의 유무에 따라 사물어(thing words)와 질량어(mass words)로 나누었다. 사물어(thing words)는 어떠한 형태나 정확한 한계를 가진 독립된 단위를 가리키는 단어이고 질량어(mass words)는 어떠한 형태나 정확한 한계를 가진 사물의 개념을 상기시키지 못하는 단어라고 하였다. 또 Whorf(1956: 140)[17]는 물리적 사물(physical things)을 지시하는 명사를 개별어(individual words)와 질량어(mass words)의 두 범주로 분류하였다. 개별어(individual words)는 명확한 외형(definite outline)이 있는 형체를 지시하고 질량어(mass words)는 한계나 범위가 모호한 동질 연속체(homogeneous continual)를 지시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두 사람은 단위개념이 사물의 본질에 있다고 보았다. McCawley(1975: 314-317)[12]는 cold와 flu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산명사의 의미는 개별화를 명시하고 물질명사의 의미는 개별화가 모호하다고 하였다. 그는 cold의 가산성은 그 의미에 명시된 개별화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I have a cold가 가능하지만 flu는 지시기능을 개별화 하지 못하기 때문에 I have a flu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Quine(1960: 91)[14]은 가산명사인 shoe, a pair of shoes와 물질명사인 footwear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지시하고 다만 그것들이 지시기능을 분리하는 방법에서만 서로 다르다고 했다. 즉 shoe나 a pair of shoes는 지시기능을 개별화 하지만 footwear는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이 두 사람은 단어가 지시대상과 상관없이 그 자체에 단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Chen(1988: 20)[13]은 단어가 물질이나 재료의 의미로 취급될 경우에 질량명사이며 형상을 갖춘

물체나 물질의 종류로 취급되면 가산명사가 된다고 하였다. 또 그는 질량과 가산의 구별이 surgery와 operation과 같은 단어가 의미에서는 유사할지라도 가산성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즉 대부분의 모국어 화자들은 surgery의 의미는 상처와 질병을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surgery는 물질 명사이지만 operation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가산 명사라고 했다. 즉 수술하는 행위가 치료보다 개별화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실체물들에 대해 가산명사인지 질량명사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고 유형의 물체들이 모두가 가산명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McCawley(1975: 314-321)[12]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예를 보면

(7) a. Chinese food is often served with rice or noodles.
b. We produce a variety of packaged pasta products mainly long noodles such as spaghetti linguine, and fettuccine.
c. Have a chair.
d. They are pushing furniture into the house.

(7a), (7c)는 가산 명사이지만 (7b),(7d)는 불가산 명사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가산명사가 되고 불가산 명사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뚜렷한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 또 다른 가산성에 대해서 보면 같은 단어가 가산명사와 불가산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한학성(1996: 50)[8]은 이것을 양성명사라고 하였고 Jespersen(1924: 199)[10]은 의미변화가 가산성의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였으며 paper(종이, 신문) talent(재능, 재능있는 사람) iron(철, 다리미)를 예로 들었다. 즉 한 단어가 가산명사와 불가산 명사 양쪽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면

(8) a. She wrapped it in brown paper.
b. He reads an evening paper after supper.
c. She was a beauty.
d. She had beauty in her youth.

(8a)의 paper는 물질명사로서 종이를 의미하지만 (8b)는 가산 명사로서 석간신문이라는 단위 개념을 갖는다. (8c)는 미인을 지시하므로 단위개념을 갖지만 (8d)는 아름다움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다. 양성명사의 다른 유형으로는 동일대상을 지시하면서 가산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그 한 가지 예로 물질명사로서의 cake와 독립된 개체로서의 cake이다. 다음 예를 보면

(9) a. Have some more cake!
b. I like a fruit cake.

(9a)는 물질명사로서의 cake을 나타내고 (9b)는 독립된 개체로서 cake을 나타낸다. 또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산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명사들도 있는데 이 명사들은 물질이나 속성 또는 단위개념 중 어느 한 쪽만을 지시하므로 가산명사 또는 불가산 명사로 고정되어 쓰인다.
다음 예를 보면

(10) a. I am plaining a journey to Europe.
b. They say travel broadens the mind.
c. I'm looking for a job.
d. Machines do much work today.

(10a)는 단위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산명사로 사용되고, (10b)는 일반적인 개념을 나타내므로 불가산 명사이다. (10c)는 구체적인 일자리를 의미하므로 가산명사로 사용되고, (10d)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므로 불가산 명사로 사용된다.

3. 실험연구

3. 1.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사립 대학교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195명의 학생들 중 성 별로 나눈 학생들은 남학생은 80명이고 여학생은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응답하게 하였다.

수준별 연구에서는 총 195명의 학생들 중 영어 독해와 문법의 능숙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을 토대로 하여 90점 이상인 학생들을 상위 집단 80점 이상인 학생들을 중위 집단 80점 이하인 학생들을 하위 집단으로 분류 하였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내용은 문법 문제 20문항, 독해문제 10문항으로 중간수준의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상위 집단의 학 생수는 60명 중위 집단의 학생 수는 99명 하위 집단의 학생수는 36명 이었다. 설문지의 문제는 다지 선택문제 6문제와 어순 조정문제 7문제 그리고 오류 정정 문제 6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부정관사에 대해 다지 선택문제(여섯 문제), 어순 조정문제(일곱 문제) 그리고 오류 정정문제(여섯 문제) 등 열아홉 문제로 이루어졌으며 some의 의미를 갖는 경우(1번), the same의 의미(2번)를 갖는 경우, a certain의 의미(15, 16번)를 갖는 경우, each, per의 의미(3, 5, 13번)를 갖는 경우, one의 의미(6번)를 갖는 경우, 총칭적 용법(4번)의 경우 관사의 위치(7 ,8 ,9, 10, 11, 12, 14, 17, 18번), 7, 8, 9, 11, 12, 14, 18번의 경우는 관사 + 형용사 + 명사의 경우이고 10번, 17번의 경우는 형용사 + 관사 + 명사의 경우 이다. 형용사가 붙은 고유명사는 특성에 따라 셀 수 있는 명사가 되는 경우(19번)의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3.2 연구 분석 방법 및 결과

성별과 수준별에 따른 부정관사 습득에 대한 설문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분석은 SPSS 12.0으로 일원분산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 첫 번째인 성별에 따른 부정관사 습득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기술 통계는 19문제 중 세 문제(총칭적 용법의 부정관사, one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관사, 부정관사의 위치)에서 여학생이 우수하였고, 한 문제(per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관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이 동일하였으며 나머지 열 네 문제에서 남학생들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부정관사 습득에 관한 F 검증 결과는 문항 2, 10, 15, 16, 17에서 자유도가 1, 194 일 때 유의수준 .05에서 문제 2번은 계산된 F값 = 4.036(the same의 의미로 쓰인 부정관사)이고, 문제 10번과 17번은 계산된 F값 =4.716, 4.959(부정관사의 위치 형용사 + 관사 + 명사)이고 문제 15번과 16번은 F값 = 4.603, 8.291(a certain의 의미로 쓰인 부정관사)이므로 이 다섯 문제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부정관사 습득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위 다섯 문제 the same의 의미로 쓰인 부정관사, a certain의 의미로 쓰인 부정관사, 부정관사의 위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그 외 나머지 14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1. 성별 분산분석 결과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2	Between Groups	.462	1	.462	4.036	.046
	Within Groups	22.072	193	.114		
	Total	22.533	194			
10	Between Groups	1.077	1	1.077	4.716	.031
	Within Groups	44.072	193	.228		
	Total	45.149	194			
15	Between Groups	.993	1	.993	4.603	.033
	Within Groups	41.653	193	.216		
	Total	42.646	194			
16	Between Groups	1.727	1	1.727	8.291	.004
	Within Groups	40.191	193	.208		
	Total	41.918	194			
17	Between Groups	1.124	1	1.124	4.959	.027
	Within Groups	43.748	193	.227		
	Total	44.872	194			

* p<. 05

연구 문제 두 번째인 수준별 부정관사 습득에 차이가 있는가? 에 대한 연구의 기술 통계 결과는 2번(the same의 의미로 쓰인 부정관사)과 5번(each나 per의 의미로 쓰인 부정관사)문제에서 하위 집단이 중위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고 14번(부정관사의 위치)문제에서는 중위 집단이 상위 집단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음을 보여주었다.

수준별 부정관사 습득에 관한 F 검증의 결과는 전체 열 아홉 문제 가운데 열 네 문제(1, 4,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에서 자유도가 2, 192일 때 유의수준 .05에서 문제 1번에 계산된 F 값 = 3.383(some의 의미로 사용된 부정관사)이고, 문제 4번에 계산된 F 값 = 3.604(총칭적 용법으로 사용된 부정관사), 문제 6번에 계산된 F 값 = 7.440(one의 의미로 사용된 부정관사), 문제

7번에 계산된 F 값 =11.225 , 문제 8번에 계산된 F 값 = 4.056 , 문제 9번에 계산된 F 값 = 10.866 , 문제 10번에 계산된 F 값 = 10.952, 문제 11에 계산된 F 값 = 7.283 , 문제 12에 계산된 F 값 = 4.498 , 문제 14에 계산된 F 값 = 4.539 , 문제 17번에 계산된 F 값 = 7.575 , 문제 18번에 계산된 F 값 = 7.699 이며 부정관사의 위치에 관한 문제 (관사 + 형용사 + 명사)이다. 이 중 10, 17번은 관사의 위치가 (형용사 + 관사 + 명사)일 경우이다. 문제 15번에 계산된 F 값 = 10.818 이고 문제 16번의 F 값 = 5.517(a certain의 의미로 사용된 부정관사)이었다. 그러므로 위 14문제에서 수준별 부정관사 습득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위의 열 네 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2. 수준별 분산분석 결과

		Sum Square	df	Mean Square	F	Sig
1	Between Groups	1.249	2	.624	3.383	.036
	Within Groups	35.438	192	.185		
	Total	36.687	194			
4	Between Groups	1.309	2	.655	3.604	.029
	Within Groups	34.875	192	.182		
	Total	36.185	194			
6	Between Groups	3.506	2	1.753	7.440	.001
	Within Groups	45.242	192	.236		
	Total	48.749	194			
7	Between Groups	4.464	2	2.232	11.225	.000
	Within Groups	38.182	192	.199		
	Total	42.646	194			
8	Between Groups	1.215	2	.608	4.056	.019
	Within Groups	28.764	192	.150		
	Total	29.979	194			
9	Between Groups	4.910	2	2.455	10.866	.000
	Within Groups	43.377	192	.226		
	Total	48.287	194			
10	Between Groups	4.623	2	2.312	10.952	.000
	Within Groups	40.525	192	.211		
	Total	45.149	194			
11	Between Groups	3.286	2	1.643	7.283	.001
	Within Groups	43.309	192	.226		
	Total	46.595	194			
12	Between Groups	1.787	2	.893	4.498	.012
	Within Groups	38.131	192	.199		
	Total	39.918	194			
14	Between Groups	1.986	2	.993	4.539	.012
	Within Groups	41.994	192	.219		
	Total	43.979	194			
15	Between Groups	4.319	2	2.159	10.818	.000
	Within Groups	38.327	192	.200		
	Total	42.646	194			
16	Between Groups	2.278	2	1.139	5.517	.005
	Within Groups	39.640	192	.206		
	Total	41.918	194			
17	Between Groups	3.282	2	1.641	7.575	.001
	Within Groups	41.590	192	.217		
	Total	44.872	194			
18	Between Groups	3.427	2	1.713	7.699	.001
	Within Groups	42.727	192	.223		
	Total	46.154	194			

*p< .05

다음으로 어떤 요인들끼리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후 검증은 집단들의 사례수가 동일한 경우에 사용하는 Tukey 방법과 집단들의 사례수가 다를 경우에 사용하는 Scheffe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Tukey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3. 다중 비교분석 결과

DV	(I) LEVEL	(J) LEVEL	Mean Dufference (I-J)	Std. Error	Sig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Bound	Upper Bound
4	1.00	2.00	.1394	.06973	.115	-.0253	.3041
		3.00	.2278*	8985	.032	.0155	.4400
	2.00	1.00	-.1394	.06973	.115	-.3041	.0253
		3.00	.0884	.08295	.537	-.1075	.2843
	3.00	1.00	-.2278	.08985	.032	-.4400	-.0155
		2.00	-.0884	.08295	.537	-.2843	.1075
6	1.00	2.00	.1919*	.07942	.044	.0043	.3795
		3.00	.3889*	.10234	.001	.1472	.6306
	2.00	1.00	-.1919*	.07942	.044	-.3795	-.0043
		3.00	.1970	.09448	.096	-.0262	.4201
	3.00	1.00	-.3889*	.10234	.001	-.6306	-.1472
		2.00	-.1970	.09448	.096	-.4201	.0262
7	1.00	2.00	.1465	.07296	.113	-.0259	.3188
		3.00	.4444*	.09401	.000	.2224	.6665
	2.00	1.00	-.1465	.07296	.113	-.3188	.0259
		3.00	.2980	.08679	.002	.0930	.5030
	3.00	1.00	-.4444*	.09401	.000	-.6665	-.2224
		2.00	-.2980*	.08679	.002	-.5030	-.0930
8	1.00	2.00	.1384	.06333	.076	-.0112	.2880
		3.00	.2167	.08160	.023	.0239	.4094
	2.00	1.00	-.1384	.06333	.076	-.2880	.0112
		3.00	.0783	.07533	.553	-.0997	.2562
	3.00	1.00	-.2167*	.08160	.023	-.4094	-.0239
		2.00	-.0783	.07533	.553	-.2562	.0997
9	1.00	2.00	.3096*	.07777	.000	.1259	.4933
		3.00	.4056*	.10020	.000	.1689	.6422
	2.00	1.00	-.3096	.07777	.000	-.4933	-.1259
		3.00	.0960	.09251	.554	-.1225	.3145
	3.00	1.00	-.4056*	.10020	.000	-.6422	-.1689
		2.00	-.0960	.09251	.554	-.3145	.1225
10	1.00	2.00	.2273*	.07517	.008	.0497	.4048
		3.00	.4444*	.09685	.000	.2157	.6732
	2.00	1.00	-.2273*	.07517	.008	-.4048	-.0497
		3.00	.2172	.08941	.042	.0060	.4284
	3.00	1.00	-.4444*	.09685	.000	-.6732	-.2157

		2.00	-.2172*	.08941	.042	-.4284	-.0060
	1.00	2.00	.1808	.07770	.055	-.0027	.3643
		3.00	.3778*	.10013	.001	.1413	.6143
11	2.00	1.00	-.1808	.07770	.055	-.3643	.0027
		3.00	.1970	.09244	.086	-.0214	.4153
	3.00	1.00	-.3778*	.10013	.001	-.6143	-.1413
		2.00	-.1970	.09244	.086	-.4153	.0214
	1.00	2.00	.1364	.07291	.150	-.0359	.3086
		3.00	.2778*	.09395	.010	.0559	.4997
12	2.00	1.00	-.1364	.07291	.150	-.3086	.0359
		3.00	.1414	.08673	.235	-.0635	.3463
	3.00	1.00	-.2778*	.09395	.010	-.4997	-.0559
		2.00	-.1414	.08673	.235	-.3463	.0635
	1.00	2.00	.1288	.08106	.253	-.0927	.3203
		3.00	.2500*	.10445	.046	.0033	.4967
13	2.00	1.00	-.1288	.08106	.253	-.3203	.0627
		3.00	.1212	.09643	.421	-.1065	.3490
	3.00	1.00	-.2500*	.10445	.046	-.4967	-.0033
		2.00	-.1212	.09643	.421	-.3490	.1065
	1.00	2.00	-.0071	.09652	.995	-.1878	.1737
		3.00	.2556*	.09859	.028	.0227	.4884
14	2.00	1.00	.0071	.07652	.995	-.1737	.1878
		3.00	.2626*	.09102	.012	.0476	.4776
	3.00	1.00	-.2556*	.09859	.028	-.4884	-.0227
		2.00	-.2626*	.09102	.012	-.4776	-.0476
	1.00	2.00	.2571*	.07310	.002	.0844	.4297
		3.00	.4111*	.09419	.000	.1886	.6336
15	2.00	1.00	-.2571*	.07310	.002	-.4297	-.0844
		3.00	.1540	.08696	.182	-.0514	.3594
	3.00	1.00	-.4111*	.09419	.000	-.6336	-.1886
		2.00	-.1540	.08696	.182	-.3594	.0514
	1.00	2.00	.1339	.07434	.147	-.0357	.3155
		3.00	.3167*	.09579	.003	.0904	.5429
16	2.00	1.00	-.1399	.07434	.147	-.3155	.0357
		3.00	.1768	.08843	.115	-.0321	.3856
	3.00	1.00	-.3167*	.09579	.003	-.5429	-.0904
		2.00	-.1768	.08843	.115	-.3856	.0321
	1.00	2.00	.2101*	.07615	.017	.0302	.3900
		3.00	.3667	.07812	.001	.1349	.5984
17	2.00	1.00	-.2101	.07615	.017	-.3900	-.0302
		3.00	.1566	.09058	.197	-.0574	.3705
	3.00	1.00	-.3667*	.09812	.001	-.5984	-.1349
		2.00	-.1566	.09058	.197	-.3705	.0574
	1.00	2.00	.1237	.07718	.247	-.0586	.3060
		3.00	.3889*	.09945	.000	.1540	.6238
18	2.00	1.00	-.1237	.07718	.247	-.3060	.0586
		3.00	.2652*	.09181	.012	.0483	.4820
	3.00	1.00	-.3889*	.09945	.000	-.6238	-.1540
		2.00	-.2652*	.09181	.012	-.4820	-.0483

* p<.05

Tukey 방법으로 계산된 다중 비교 검증의 결과를 보면 유의 수준 .05에서 문제 4, 8, 11, 12, 13, 16번 문제에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냈고 상위 집단과 중위 집단, 중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문제 6, 9, 15, 17번 에서는 상위 집단과 중위 집단,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고 중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

문제 7, 14, 18번 에서는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중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타나내고 상위 집단과 중위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

문제 10번 에서는 상위 집단과 중위 집단,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중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학생들의 부정관사 습득에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제작하여 작성하게 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 성 별에 따른 부정관사 습득에 차이가 있는가? 에서는 the same, a certain의 의미로 사용되는 부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위치의 문제에서 성별(남, 여)에 따른 부정관사 습득의 차이가 없을 것 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음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문제 수준에 따라 부정관사의 습득에 차이가 있는가? 에서는 부정관사가 some, 총칭적 용법, one , a certain의 의미 그리고 관사의 위치 문제에서 수준별 부정관사 습득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 볼 것은 오류 정정 문제 중 다음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195명의 학생 전원이 정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아마 고유명사 앞에는 항상 정관사 the 가 온다는 것이(the sun, the moon, the earth...)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듯하다. 형용사가 붙은 고유명사는 특성에 따라 셀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암기 위주의 학습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부정관사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보여 진다.

따라서 부정관사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정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는 부정관사 습득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행구, *영어관사의 체계와 습득의실제*, 경진문화사, 2001.

[2] 김세중, *영어관사의 체계와 활용*,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3] 김학엽, *한국화자의 영어 관사 사용의 오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4] 박기화, *외국어로서의 영어 관사 기능의 습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5] 박재곤, *한국고등학생들의 영어 관사 사용상의 오류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6] 신용진, *영어 학습자의 오류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0.

[7] 조용남, *영어에 있어서의 한정성의 문제*, 건국대학교 인문과학 논총, 1993.

[8] 한학성, *영어관사의 문법*, 태학사, 1996.

[9] C. Paul, *The Article: A Study of Their Theory and Use in English*, Cophenhagen: Munksgaard. 1939.

[10] J. Otto, *The Philosophy of Grammar*.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24.
_____ *A Modern English Grammar in Historical Principles*, Part VII: syntax, London: Allen and Unwin. 1949.

[11] D. Kosofsky, *On Articles, The Study of Current English*. Apr, 1984.

[12] J. D. McCauley, *Proceedings of the 1st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ry Linguistics Society*. 1975.

[13] P. Chen, *Determiners and Relative Clauses in English*. Unpublished Master Thesis,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1988.

[14] W. D. O. Quine, *Word and Object*, Cambridge Mass: MIT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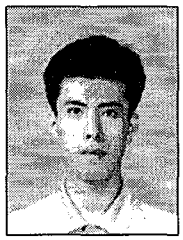
[15] Quirk. et al,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1972.

[16] H. Sweet, *A New English Grammar*,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58.

[17] B. L. Whorf,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Cambridge, Mass: Technology Press MIT and New York: Wiley. 1956.

저 자 소 개

김 경 훈(Kyung-Hoon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조선대학교 영문학과(영문학사)
- 2002년 8월 : 조선대학교 영문학과(문학석사)
- 2005년 2월 : 조선대학교 영문학과(문학박사수료)
- 2003년 9월~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영어 교육, 멀티미디어